

# 건축인—쟁이정신의 재음미

노형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정

by Ro, Heoung-Rae

짜증나던 복덕위도 아침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에 그 끝을 보이고 있다.

업무 협의, Schedule 작성, 설계 업무, 출장, 미진한 부분의 보완, 납품, 수주, 월말 자금 계획 등 하루일과가 바쁘기만하다.

정치혼란, 질서의식의 결여, 도덕성의 위기, 경제불안, 근로윤리의 부재, 사무실 운영, 복잡하게 얽힌 현실, 모순 투성이의 상황에 깊이 결부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질실하게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잠시 들어켜 볼 필요를 느낀다.

건축을 한다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실 인식에의 Enlightenment, Seeker적 입장에 있어야 함을 안다. 그러나 급변하는 물질문화 속에 대단히 융통적이며, 건축주의 빈약한 건축적 의지를 이유로 실험정신을 망각하고 보편적 사회 통념속으로 안주하려 하지는 않는가?

금년 여름방학을 기해 나의 사무실에는 2명의 실습생이 열심히 실무 공부에 여념이 없다.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지함과 성실함, 섬세함을 느낀다. 학교에서 습득한 여러 이론적 근거에 따른 디자인 원리, 창조 정신의 철학적바탕, 건축가의 자세, 지위, 역할, 사명 등에 관한 의혹을 던졌을 때 십수년전 교문을 나와 사회조직의 일원이 되면서의 창에 불이 꺼지지 않는 소수의 조직이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하라는 선배의 조언이 생각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양상들을 건축과 사회적 요구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상황 설명들로 쉽게 설득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나 자신 진심으로 지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가치를 부여하는 까닭이리라.

우리의 지각 대상으로서의 건물 그 자체는 우리의 지각에 의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일정한 하나의 물리적 사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각하게되는 인생체험과 역사, 철학의 인식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각도가 다를 밖에 없음을 안다.

훌륭한 건축물에는 몇가지 조건 즉 사회적 상황, 좋은 건축주, 건축기간, 건축비, 실용성, 견고성, 기쁨(창조)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의식, 무의식이든 일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건축적 자질을 격정하는 마음속에 창조의 노력—기존 습성의 회유, 자아의 확산, 자율성, 자신의 독립심, 견문을 넓히고 고도의 지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 자체(recharge)—은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며 신선하다거나 적어도 통계상 극히 드문 감응, 내지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나 행동의 참신성, 독창성은 창조에 있어서의 필요한 일국면이기는 하나 하나의 감응이 창조과정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합성, 다시말하면 현실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을 갖춘 많은 건축가들도 오늘날의 건축 디자인에서 그러한 감응을 줄만한 건물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당혹해 할 것이다.

사실 많은 건축가들이 오늘날 전연 상반된 관점에서 디자인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회 과학 분야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보편적 기술만으로 여겨 이 욕구가 야기시키는 건축적인 문제의 표준화된 해결책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건축가의 교육에는 능숙한 소묘 솜씨, 기하학의 훈련, 역사의 통달, 자기 철학의 확립, 음악의 이해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추고 법학자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천문학적 천체 이론에 익숙해야 한다는 건축가의 본성을 이야기한 글귀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적합하며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관찰력과 사고력, 창조력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숙고할 수 있는 태도, 완성에의 추진력을 포함하여야 하지 않을까?

존재의 미약함.

게으름.

무한한 생동력.

캐나다 주점에서 람바다 춤과 일행들.

포스트모던에서 하이테크로.

Bad Client와의 만남.

선배들의 고뇌를 생각하며 재음미 해본다.

## “建築法遺憾”

崔勝元

史加周望 건축사사무소

by Choi, Seung-Won

작년 연말 어느 송년회에서 만난 친구에게 개업해서 작품생활을 해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내 “건축허가 내기 힘들어서 개업할 수 있겠느냐”는 답에 잠시 멍해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작년 S도시의 중심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고생한 기억이 악몽처럼 남아 있는 차에 친구의 이야기는 참 현실적이었다.

不許 이유는 “건축에 母性的인 날개를 부착한 건축설계는 준공후에 날개 밑에 무허가 건축을 할 우려가 있기에 무조건 허가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란다. 이로인해 반년동안 일한 것이 결국 헛수고가 되고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대단하였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 순수성의 건축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양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 건축디자인이 최종단계에서 관권에 의해 걸려있는 한 건축문화의 창달은 있을 수 없고 이웃과 이웃나라로부터 저속스럽다는 표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0년전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어느 선배가 껌속말로 건축사는 비비는 직업이라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로 나는 기분이 상하여 그 선배를 찾아 뵈는 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에게 조언을 해준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여름 해외건축시찰 도중 막간에 동료들과 한담이 있었는데, 어느 건축주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여러회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흥정을 해 상담료도 건지지 못한 헤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남을 시켜서라도 잘 비비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공화국이 4공, 5공, 6공으로 바뀔 때마다 건축허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발전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칼이 무서워지는 것은 폐기시켜야 할 각종 건축법의 독소조항이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중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발전에 따른 비현실적인 독소조항 건축법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한다.

초여름 동료회우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때 내가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업무상 어려운 일이 있었느냐”고 한 것이 나의 1차 질문이었다. 결국 과로로 인한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회원들이 업무관계로 입건되어도 무슨 잘못이 있겠지 하면서 우물우물 넘겨 보내는 것이 건축사란 직업이다, 건축사들은 눈치만 보고 자기일이나 한 건 더하려는 利己의인 행동이 심한 전문직이라고 생각된다.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약해지는 것이 건축사 협회라 생각된다. 폐기되어야할 건축법이 여러가지 있으나. 그 중 최근 강력한 민원의 하나로 지하층 과다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건축에서 지하층의 설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의 역할도 못하는 것인데 기형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100만 가구가 건설된다면 그중 지층의 4분의1에 해당 되는 25만가구가 지하층에 주거한다고 예측된다. 금년에도 결코나 누수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대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 실험을 해보고 불량주택 건설을 독려하는 정책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질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주가 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저층주택에서 일조권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조치가 필요하다면 남쪽으로 적용시켜 마당, 정원,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번 건의가 있었는데 실험도 안해보고 방치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고쳐나가야만 건축이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폐기되고 정리되어야 할 법들이 존재 하는한 각종 건축이 모래 위에 누각이 될 것이다.

수출자유지역이나 개방지역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듯이 건축개방도시를 신도시에 지정하여 대지는 임대조건으로, 현행건축법의 저축을 받지않는 개방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곳이 새로운 인류문명의 발생지가 될지 누가 예측하겠는가, 물론 이 도시건설에도 비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현행건축법의 독소조항은 없어야 한다.